

JET からの手紙

「楽しく付き合っていきたいです」

(株)Inpainter Global 代表 朴省姫 (パク・ソンヒ)

JET プログラムに参加して長崎県庁で勤務した際に参加した、NHK 外国人弁論大会でのスピーチの最後の言葉です。3年間の貴重な経験を終え、帰国直後はソウル市役所のワールドカップ振興局で2002年ワールドカップ関連の仕事をしました。お互い盛り上がっていた時期でしたし、国同士はもちろん、自治体や民間レベルでもさまざまなイベントが行われ、帰国してからはしばらくは毎日がお祭りのようでした。

当時は JET での経験を共有したいという意欲も強く、JETAA 大韓民国支部の会長として、支部活動にも一所懸命取り組んでいた時期でもあり、支部主催の交流事業をやってみたいという思いから「日韓交流スピーチ大会」を提案し、関係機関など多くの方々から応援をいただきながら、実現に向けて奔走していました。

実は JET 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前、私は釜山にある日本総領事館で5年間勤務をしていたので、仕事を辞めて JET プログラムに参加することには自分なりの覚悟がありました。いつか、日韓の間で楽しいことを作っていき人になりたいと。そのためには、言葉の理解だけでなく、両方の立場になって、お互いが期待していることや敏感な部分、悩んでいる部分などを理解しながら、その中で楽しく向き合える接点を見出し、双方をそれに近付ける感覚、経験、ネットワークを身につける必要があるのではないかと。そしていつか、相互に理解できる楽しい仕事を創っていただけたら素敵だなと夢見ていました。

運よく、日本政府関連の仕事をするようになり、JET を経験し、帰国後は JETAA の支部活動をしながら、韓国の自治体、日本の自治体の共同事務所で仕事を経て、自分と同じような経験を持つメンバー（実は今の自分の会社には JET 経験者が3人います）と一緒に楽しい接点を作る仕事を目標して会社を立ち上げるまでになりました。

理想だけでスタートした会社ではありますが、あっという間に10年を迎え、色々なの方々から応援をいただき、何とか頑張っています。今は、日本の自治体（秋田県、和歌山県、岡山市、倉敷市など）の韓国での観光 PR や、JR 九州、JR 北海道の PR 事業、それから「アイリス I、II」（秋田県ロケ）、「アテナ」（鳥取県ロケ）などのドラマロケーションとしての PR 活動、ウェブ関連のプロモーションなどと、在韓日本大使館公報文化院や国際交流基金ソウル文化センター、JNTO ソウル事務所などの事業もお手伝いしています。

また、日本での滞在や今までの交流経験を活かして、韓国人に有益な情報を提供したいという思いから出版事業も行っています。日本全国のガイドブックシリーズの発行（「沖縄ホリデー」、「大阪ホリデー」、「北海道ホリデー」、「日本列車旅行」、「日本温泉旅行」は著者として参加）や日本の新しい旅スタイルとして自然、人との出会い、ライフスタイルをテーマにした「新しい沖縄旅行」、「新しい離島旅行」の翻訳出版の企画の他、韓国女優のコ・ヒョンジョンさんと一緒に、作り手やデザイン、出会いなどをテーマにした旅エッセイ

「コ・ヒョンジョンの旅行・女幸」（沖縄旅行）、「ヒョンジョンの側」（東京旅行）を共同企画するなど、「人と人を繋げる」ということの楽しさを共有しています。

会社を立ち上げて職員も増え、紆余曲折もありましたが、JETAA の支部活動をしていた際に自分が企画した「日韓交流スピーチ大会」が今なお続いていることを本当に嬉しく思っています。趣旨を理解して応援、参加して下さるたくさんの方々、JETAA 支部の歴代役員には本当に感謝していますし、先輩としても応援したく、現在は協賛社として参加しています。楽しい仕事をしていこう！と立ち上げた会社ですし、「日韓交流おまつり」、「日韓フォトコンテスト」、「ひらがなカタカタデザインコンテスト」など、日韓交流をテーマとする楽しいイベントには後援もしています。

10月には、韓国のアーティスト30人（デザイン、写真、映像、絵画、工芸、映画などの分野）と東京や秋田を訪れ、そこで得たインスピレーションを元に、帰国後、彼らそれぞれの分野における作品を展示する事業を進行しました。この事業のテーマは「共・感」です。色々な分野、場所でもっともっと共感できる世界になればいいなと思っています。



アイリスIIの歓迎レセプション
(司会通訳役)
아이리스 2 환영 리셉션
(사회 통역)



日韓クリエイター交流事業
(オリエンテーションでの説明)
한일 크리에이터 교류 사업
(오리엔테이션에서 설명)

プロフィール

朴省姫



大韓民国釜山出身。慶星大学日本語日本文学科で日本語を専攻。高麗大学教育大学院で韓国語教育専攻（修了）。大学卒業後に在釜山日本国総領事館に勤務した後、1998年～2001年、長崎県庁に国際交流員として勤務。韓国に帰国後は、ソウル市役所、北東北3県北海道ソウル事務所を経て2007年、海外観光コンサルティングおよびマーケティング専門会社である(株)Inpainter Global を設立。趣味はトレッキングとフラワーアレンジメント。

JET LETTER

「즐거운 교류를 하고 싶어요」

(주)인페인터글로벌 대표 박성희

JET 프로그램에 참가 중에 나가사키현청에 근무하던 시절, NHK 외국인번역대회에 나가서 발표했던 마지막 문장입니다. 3년간 귀중한 경험을 마치고, 귀국 직후에 서울시 월드컵 진흥국에서 2002년 월드컵 관련 업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양국이 서로 뜨거웠던 시기였고, 국가 차원은 물론, 자치단체, 민간에서도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되어, 귀국 후 한동안은 축제 같았습니다.

당시는 JET에서 경험했던 것을 공유하고자 하는 의욕이 충만했던 때이고, JETAA의 지부활동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시절이어서, 지부 주최의 교류사업을 해 보고 싶다는 생각에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를 제안하였고,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셨습니다.

사실은 JET 프로그램을 참가하기 전에 부산 일본총영사관에서 5년 정도 근무를 하고 있었고, 일을 그만두고 JET 프로그램에 참여하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스스로에게 다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언젠가 한일간에 재미있는 일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그러기 위해서는 언어의 이해뿐 아니라 양쪽 입장이 되어서 서로가 기대하는 부분, 민감한 부분, 고민하는 부분 등을 이해하고, 그 속에서 모두가 즐겁게 바라볼 수 있는 접점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하는 감각, 경험, 네트워크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그리고 언젠가 양쪽을 이해하는 즐거운 일을 할 수 있다면 멋진 거 라는 꿈을 꾸고 있었습니다.

운 좋게도 일본정부 관련 일을 하게 되었고, JET 경험을 하고, 귀국 후에는 JETAA 지부활동을 하면서 한국 자치단체, 일본 자치단체의 공동 사무소를 거쳐, 같은 경험을 한 멤버(지금 회사에는 JET 경험자가 3명 있습니다)와 즐거운 접점을 찾는 업무를 해보자는 마음으로 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이상만으로 시작한 회사지만, 순식간에 1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나, 많은 응원 덕분에 그럭저럭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일본 자치단체 (아키타현, 와카야마현, 오카야마시, 구라시키시 등)의 한국에서의 관광 홍보와 JR 규슈, JR 홋카이도의 홍보 관련, 아이리스 1, 아이리스 2 (아키타현 촬영), 아테나 (돗토리현 촬영) 등 드라마 유치를 통한 홍보 활동, 웹 관련 프로모션, 주한일본대사관 공보문화원, 국제 교류기금 서울문화센터, JNTO 서울사무소 등의 사업을 협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에서의 생활, 지금까지의 교류 경험 등을 기반으로 한국인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보자는 생각에서 출판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일본 전국 가이드북 시리즈인 [오키나와 홀리데이], [오사카 홀리데이], [홋카이도 홀리데이], [일본 기차 여행], [일본 온천 여행]은 직접 저자가 되어 발행했고, 일본의 새로운 여행 스타일을 제안하는 자연, 사람, 생활 모습을 테마로 한 [새로운 오키나와 여행]과 [새로운



新しい旅行シリーズ本の出版関連トークイベント(筆者&翻訳出版企画者のトーク)
새로운 여행 시리즈 책 출판 관련 북 콘서트 이벤트 (저자&번역 출판 기획자의 토크)



スタッフと取材の際の写真
스टा프와 취재시의 사진



スタッフと取材の際の写真
스टा프와 취재시의 사진

일본의 섬 여행)은 번역 출판을 기획, 그리고 한국 배우로 유명한 고현정 씨와 함께 예술, 디자인, 사람과의 만남 등을 테마로 여행 에세이 ([고현정의 여행 여행 (오키나와 여행)], [현정의 걸 (도쿄 여행)]를 공동 기획하는 등,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작업”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를 설립한 후 직원도 늘고,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JETAA 지부활동을 열심히 했던 당시에 직접 기획한 [한일 교류 말하기 대회]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취지를 이해하고 응원, 참가해 주신 많은 분들, JETAA 지부 역대 임원들에게 너무 감사한 마음이며 선배로서도 응원하고 싶어, 지금은 협찬사로 참가하고 있습니다. 즐거운 일을 하자는 마음으로 만든 회사이고, [한일축제한마당], [한일포토콘테스트], [히라가나 가타카나 디자인 콘테스트] 등 교류를 테마로 한 즐거운 이벤트에도 응원을 하고 있습니다.

10월에는 한국의 아티스트 30명 (디자인, 사진, 영상, 회화, 공예, 영화 등의 분야)과 함께 도쿄와 아키타 지역을 방문, 현지에서 얻은 영감을 바탕으로 귀국 후 각자의 분야에서 멋진 작품을 완성, 전시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의 테마는 [공:감]입니다. 보다 많은 분야, 장소에서 공감할 수 있는 세상이 되면 좋겠습니다.

Profile

대한민국 부산 출신. 경성대학 일어일문학과에서 일본어를 전공. 고려대학교 교육 대학원에서 한국어 교육 전공 (수료). 대학 졸업 후 재부산 일본국총영사관에 근무 후, 1998년 ~ 2001년, 나가사키현청 국제교류원으로 근무. 귀국 후 서울시청, 북동북 3현 홋카이도 서울사무소를 거쳐 2007년, 해외 관광 컨설팅 및 마케팅 전문회사 (株) Inpainter Global 을 설립. 취미는 등산과 꽃꽂이.